

[별첨]= 낭송시 원문 견본 [예시]

님의 침묵

한용운 시/ 홍길동 낭송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험싸고 돕니다

- 출처 : 한용운, 님의 침묵 / (사)문학그룹샘문 지정시, 원문 발췌